

완도 신지 명사십리에서 맨발 노르딕워킹 함께해요!

8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6~7시, 오후 8~9시 매일 2회 진행

완도군은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맨발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매일 오전 6시~7시, 오후 8~9시 매일 2회 진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를 찾으면 주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자가 집결하면 워킹 스틱을 대여해주고, 맨발 걷기 이론 및 안전 교육, 준비운동을 한 후 30여 분 동안 명사십리 해변을 맨발로 걷는다.

신지 명사십리는 맨발로 걷기 좋은 3.8km의 모랫길과 인근 해상습지에 1.2km

의 황톳길이 조성돼 있으며, 공기 비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도시의 최대 50배나 많은 청정 지역이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진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8년 연속 획득했다.

지난 12일에는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열렸으며 1천여 명이 참여해 맨발 걷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신지 명사십리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참가자는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치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이다"면서 "우리 완도는 걷고 치유하기에 최적지인 만큼 완도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흥군, 물축제 성공개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장흥군은 24일 물축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축제장 주요 시설물, 수상안전장비, 비상통로, 응급의료체계 등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물놀이 시설과 야간 행사장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였으며, 안전관리 체계와 인명구조 요원 배치 등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체계 강화를 고려해야 된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물축제 역시 전남의 여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인 만큼, 안전과 품격을 함께 갖춘 축제가 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시설과 야간 행사장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였으며, 안전관리 체계와 인명구조 요원 배치 등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장흥 물축제"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읍 탐진강 일원에서 개최되며, 물놀이 체험과 공연, 다양한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흥군 제공

진도군이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난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는 도로변과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에는 ▲읍면(7개) 공공근로 32명 ▲지역공동체일자리 27명(진도개터마파크, 녹진·회동 관광지, 삼별초

진도군,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총 59명의 취업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마련

공원과 파크골프장, 아리랑마을, 자생식물전시장과 국토공원화)이 참여할 예정이며, 총 15개소에서 59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다. 군은 사업 참여자들의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냉감 소재의 토시와 스카프, 아이스팩 등 물품이 지급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혹서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자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 체험활동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2025년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00명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 체험활동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안작은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문화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더운 날씨에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무안군 제공



담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및 캠페인 전개

담양군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 24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휴가철과 방학기간 중 청소년 밀집지역 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담양읍 변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술·담배 판매업소, PC방 등을 방문하여 술·담배 등 유해물품 청소년판매 금지 및 스티커 부착, PC방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를 당부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수해 양식장 현장 방문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집중호우 시기 낙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발 빠른 복구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는 지난 집중호우 시기 낙뢰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면서 양식생물(민물장어)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어린 민물장어 14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영광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복구를 시작했으며, 정밀한 피해조사가 신속히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